

한국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C4IR Weekly Stories

2025년 11월 18일

C4IR Korea Global Intelligence Hub (koreago.net)

본 자료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주 발간하는 Forum Stories 를 한국(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번역한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이 번역의 내용이나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Forum Stories 발간일자: '25년 11월 14일)

스포츠라이트

COP30: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대한 기후 지도자들의 기대



이번 주,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시작되었으며, 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André Corrêa do Lago) 의장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진실의 COP”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기후 재정과 산림 보존을 포함한

주요 의제를 포함하여, COP30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하여 다섯 명의 기후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COP30의 성공은 실행과 지속적인 실행을 의미합니다." — 단 이오슈페(Dan Ioschpe), COP30 기후 고위급 챔피언

 "사람들은 우리가 도입하려는 혁신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마리아 멘딜루체(María Mendiluce), 위민비즈니스연합(We Mean Business Coalition) CEO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기업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경청하고, 투자의 장애물을 이해하며, 고립되지 않고 협력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 예스페르 브로딘(Jesper Brodin), 잉카그룹(Ingka Group)

한편, 기후 과학자 요한 록스트룀(Johan Rockström)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1.5°C 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COP30 바이오경제 특사 마르코 람베르티니(Marco Lambertini)는 **바이오경제의 진정한 의미**와 기업과 투자자들이 재생 가능한 방식으로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자연 친화적인 미래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COP30 관련 추가 자료:

-  각국은 적응 진척 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일련의 지표에 합의할 예정이지만, [새로운 적응 재정 지원 약속](#)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  홍수 방지 및 가뭄 회복력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3,200억(약 465조 7,600억 원) ~ 5,000억 달러(약 727조 7,500억 원) 규모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민관 협력이 필요합니다. 포럼의 [회복력 기회: 민관 협력을 통한 기후 회복력 확보\(The Resilience Opportunity: Unlocking Climate Resilience through Public-Private Collaboration\)](#) 보고서는 전 세계 기후 대응을 확장하기 위한 6가지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More

에디터 선정

글로벌 원조, 공감 격차, 관광을 넘어 등

1. **공여국 정부들은 올해 원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번 라디오 다보스 방송은 [개발 및 원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2. **소비자의 73%는 공감을 보여주지 않는 기업을 기피합니다.** AI 시대에 [공감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사업 성공의 측정 가능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의 물결이 혁신 지역과 생태계를 통해 도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은 [혁신이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4. 전체 열대우림의 거의 4분의 1이 손실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세계는 열대우림을 보존하기 위해 [연간 산림 보호 투자를 세 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5. 관광 산업은 2034년까지 전 세계 GDP에 16조 달러(약 2경 3,288조 원)를 기여하고 1억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보고서인 [관광을 넘어: 포용적 번영을 향한 조정된 경로\(Beyond Tourism: Coordinated Pathways to Inclusive Prosperity\)](#)에 따르면, 관광 부문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계적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More

임팩트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인력 건강 투자



회복력 있는 공급망에는 건강한 근로자가 필수적입니다. 포럼의 [가치 사슬 전반의 근로자 건강: 위험 완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창출을 위한 조직적 통찰력\(Workforce Health Across the Value Chain: Organizational](#)

Insights to Mitigate Risk and Create Sustainable Growth)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공중 보건 격차, 기후 변동성, 세계적 불안정성을 헤쳐나가는 가운데,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근로자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공중 보건과 경제적으로 모두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최고 임원진부터 노조 지도자까지 60 명과 함께한 인터뷰를 통해 얻은 통찰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근로자 건강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직접 고용된 직원과 가치 사슬 전반의 다른 근로자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 🌡️ 기후 변동성은 건강 위험을 심화시키고 회복력 전략 및 위험 평가의 격차를 드러냅니다.
- ⚖️ 기업, 산업, 정부 및 시민 사회 전반에 걸쳐 공동 협력적 리더십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거버넌스는 분열되고 있습니다.

시사점: 근로자 건강은 종종 간과되지만 기업의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식량, 농업, 건축 환경, 건강 및 의료 부문 전반에 걸친 기후 건강 효과의 전 세계적 영향으로 2050 년까지 1 조 5,000 억 달러(약 2,183 조 2,500 억 원)의 생산성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More
